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금융시장, 내년 1월 위기설

□ 유럽의 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의 부실국채 매입과 유럽연합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2차실시 발표 등으로 인해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상황이나 국채발행이 예상되는 내년 1월 중에 다시 한 번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.
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재정적자 전염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부실국채를 매입하고 유동성지원을 연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함.
 - ECB는 19억6천5백만 유로 규모의 부실국채를 12월 1~3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등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밝힌 국채매입 불가 원칙을 깬.
 - 당초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유럽은행 긴급유동성 지원 정책도 최소 내년 4월까지 연장함.
- 유럽연합은 금융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2월에 한층 강화된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를 재실시·공표하기로 결정함.
 - 지난 7월의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동성 측정이 제외되고, 최근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의 Bank of Ireland, Allied Irish Bank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테스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.
 - 이에 따라 2차 테스트는 은행들이 자금조달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동성 평가를 포함하고 모든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등 엄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함.
- 그러나 최근 극도로 경색된 투자분위기로 인해 국채매매 거래가 급속히 감소하여 국채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중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정됨에 따라 국채가격 폭락과 금융시장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JP Morgan은 구제금융 분담자금 및 금융시장 안정화기금 마련, 만기도래 채권상환을 위해 내년도 유럽 선진국과 주변부 국가들의 국채발행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1월에는 대규모 발행이 예상된다고 발표함.

- 내년도 유럽 전체의 국채발행 규모는 7,600억 유로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이 1월 등 1/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.
 - 이탈리아는 내년도 1,500억 유로의 국채발행 중 500억 유로를 1/4분기, 특히 1월 중에 발행할 예정이며, 포르투갈은 95억 유로 규모의 만기도래 국채상환을 위해 1/4분기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12/7, 12/8)